

## 신화학인가? 고고학인가?

— 中國文明 起源論에 대한 再檢討 —

정 재 서\*

<目次>

I. 序言	IV. 中國文明 起源論에 대한 批判的 檢討
II. 外來說	V. 中國文明的 起源과 古代 韓國
III. 自生說	VI. 結語

### I. 序言

문명 기원론은 사실과 이념, 즉 존재와 당위가 교차하는 미묘한 논의이다. 모든 기원론 자체가 우열의 판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것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는 사실 여부를 떠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치가 게르만 민족의 기원론을 통하여 종족의 우수성과 순혈성에 대한 맹신을 바탕으로 타문화와 타종족을 얼마나 억압했던가를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 기원론의 이면에 담긴 정치적 함의를 벗겨내고 실상을 파악하는 일은 긴요한 학문적 작업이 된다.

중국문명은 게르만 문명보다도 훨씬 복잡하며 미묘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 실체이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국가 영역, 문화 영역이 포괄하는 범주는 일개 국가, 일개 문화 영역의 범주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문명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결국 중국문명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상관되는데 이것은 또한 주변 민족의 문화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 이화여자대학교 중문과 교수

정교한 고찰이 필요하다.

중국문명 기원론에 대한 검토는 동아시아 기층적 상상력의 실체를 탐구함에 있어서 이들 상상력이 어떠한 문명적 계기에 의해 배태되고 형성되었는지, 아울러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문화 정체성이 어떻게 공유되고 轉變되었는지, 나아가 한국의 기층문화 형성의 素因을 밝혀내기 위해 기초가 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국문명의 기원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크게 외래설과 자생설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다시 자생설을 단원론과 다원론으로 구분하여 논한 다음 이들 가설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문화와의 기원적 관련성에 대해 탐색하게 될 것이다.

## II. 外來說

외래설은 사실상 서방 기원설로 보아도 좋다. 서구에서는 계몽주의 시대 이후 동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중국문명의 기원에 대해 탐구를 개시하였다. 서구 학자들은 자신들의 문명 기원과 관련하여 거론되었던 이집트, 바빌론 등의 고대 문명을 중국문명의 기원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예컨대 1670년에 A. Kircher는 중국문명이 이집트에서 기원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는데 그는 한자와 이집트 상형문자의 유사성에 대해 논증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경》을 원용하여 중국은 함의 자손이 건립한 식민지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H. Cordier는 한자가 바빌론 문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며 중국인은 노아의 자손이라고 추측했다. 이들 주장의 이면에는 17~18세기에도 학술 전반에 대해 여전히 권위를 누리고 있던 《성경》의 영향이 감지된다.<sup>1)</sup>

1) 列·謝·瓦西里耶夫, 《中國文明的起源問題》(北京: 文物出版社, 1989), 44쪽. 이하 근대 이전 서방 기원설의 정황에 대해서는 주로 이 책 중의 <西方漢學論中國文明的起源>(43-49쪽) 부분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후 출처가 명시되지

19세기에 이르면 민속학, 비교언어학, 비교신화학 등이 발전하고 근동문명에 대한 연구 업적이 축적되면서 중국문명의 기원에 대한 가설도 전술한 황당한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 학문적인 논증을 갖추게 된다. 이 방면의 가장 유명한 학자로는 T. de. Lacouperie가 있다. 중국문명의 바빌론 기원설을 주장하는 그는 중국어와 바빌론어를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고자 하였고 중국의 신들과 바빌론의 신들을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라쿠프리 이후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슈메르 문명이 발견되면서 C. J. Ball 등은 설형 문자와 한자를 비교 분석한 후 중국문명이 슈메르에서 기원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영국의 저명한 중국고전 번역가 J. Legge에 의한 중앙아시아 기원설도 있었다.

한편 문헌학, 언어학, 민속학 등을 통해 주로 제기된 중국문명의 서방 기원설은 중국 현지에서의 고고학에서도 주장되었다. 중국 대륙에서 최초로 고고 발굴 작업을 시도하여 周口店의 北京猿人을 발견하고 仰韶文化와 龍山文化 등 중국 고대문명의 중요한 실체들을 확인하는 데에 큰 업적을 이룬 J. G. Andersson은 특히 양소문화의 핵심인 彩陶의 모티프와 기법이 서방에서 유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한때 중국과 관련된 대부분의 저작에서 중국 신석기문명의 서방 기원설은 定論으로 다루어졌다.

서구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된 중국문명의 서방 기원설은 근대 초기의 일부 중국 지식인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쳤다. 清末의 國學大師 章學誠과 선구적인 개혁가인 梁啓超를 비롯, 衛聚賢, 蘇雪林 등 유수한 학자들이 중국문명이 인도, 바빌론, 중앙아시아 등에서 기원했다는 등의 서방 기원설에 동조하였다. 가령 역사학자 丁謙의 경우 황제를 위시한 중국인 집단이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국대륙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신화, 전설을 근거로 중국인의 조상이 중국의 서북방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추측해온 서방 학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결과였다.

20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중국문명의 서방 기원설은 중국에서의 고고 발

---

얕은 인용은 이 책에서의 재인용임을 밝혀둔다.

굴이 확대되어 그 성과가 축적되고 또한 서구 중국학의 수준이 제고되어 서구의 일부 중국학자들이 서방 기원설에 대해 회의를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중국의 학자들이 격렬히 반대함으로써 학문적인 관심이 급격히 쇠락된다. 고고학 분야에서 細石器 문명, 청동기 문명 등과 관련하여 시베리아 혹은 북방 유목민 문명으로부터의 영향설, 중앙아시아로부터 말과 전차, 그리고 이와 함께 밀, 보리 등 麥類의 유입설 등이 제기된 바 있으나<sup>2)</sup> 문명 교류의 차원에서 대체로 긍정되고 있을 뿐 종래의 서방 기원설만큼 중국문명의 실체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까지 서방 기원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학자는 미국의 중국학자 V. Mair이다. 메어는 비교언어학의 방식을 통하여 중국인의 기원이 서방에 있고 중국문명의 상당 부분이 서방에서 전래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예컨대 그는 중국문학에서의 허구[fiction]의 개념이 인도로부터 전입되었다든가,<sup>3)</sup> 중국 창조신화에서의 중요한 모티프인 葫蘆가 서남아시아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등의 가설을 제기하여<sup>4)</sup> 중국학계에서 쟁론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소수에 불과할 뿐 현재 중국문명의 서방 기원설은 학계의 관심에서 크게 멀어진 것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 III. 自生說

일찍이 郭沫若은 중국 고대사회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개

2) Karl Jettmar, "The 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 Soviet View" *The 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Edited by David N. Keightley, 1983, pp.230-232.

3) Victor H. Mair, "The Narrative Revolution in Chinese Literature: Ontological Presuppositions" *Chinese Literature*, 1983, Vol.5, No.1-2.

4) Victor H. Mair, <Southern Bottle-Gourd(hu-lu 葫蘆) Myths in China and Their Appropriation by Taoism> 《中國神話與傳說學術研討會論文集(上)》. 臺北: 漢學研究中心. 1996.

탄한 바 있었다.

세계문화사에서 중국 방면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백지 상태이다. 엥겔스의 《가정, 사유제와 국가의 기원》에서도 중국사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 이 시점에서 중국인은 마땅히 세계문화사에서의 공백을 스스로 써서 채워 넣어야 한다.<sup>5)</sup>

곽말약의 언급은 서구 학계에서의 중국문명에 대한 무지와 무시를 개탄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중국문명의 정체성에 대한 불만과 반성이라 할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이면에는 중국문명의 고유성, 토착성에 대한 자의식이 깔려있다 할 것이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에서 중국문명의 서방 기원설이 폄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중국문명이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여 토착성을 옹호하였다. 계몽주의자를 대표했던 F. M. A. de Voltaire는 아마 이 방면에서 최초의 중국문명 지지자일 것이다. 중국의 유교통치를 계몽전제군주 정치의 이상으로 열렬히 찬양했던 그는 서방 기원설을 혹평하고 중국의 언어, 문자와 풍속이 이집트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 200여 년간 이는 예외에 속한 견해였고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서구의 중국학이 심화되면서 중국문명의 실체에 대한 異見이 나오기 시작한다. 예컨대 J. Ross는 상형문자 비교론 등 기존의 구태의연한 이론과 가설을 논박한 후 중국문명은 토착적이고 자생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심지어 그는 중국문명과 여타 문명의 유사성은 중국문명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까지 중국문명의 정체성을 옹호하였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의 명망 높은 중국학자 H. A. Giles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앤더슨에 의해 이루어진 앙소문화의 고고 발굴은 간헐적으로 제기되어온 자생설에 철퇴를 가하였다. 서방 기원설이 公論으로 굳어질 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학자는 고고학 방면

5) 郭沫若, <自序>《中國古代社會》(香港: 三聯書店, 1978).

이 아니라 문헌학, 사회학 등을 바탕으로 중국문명에 대한 깊은 조예를 보여준 H. Maspero와 W. Everhard였다. 마스페로는 발굴 결과만으로 중국 문명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에버하르트는 후술할 바이지만 중국문명은 중국 각 지역 문화의 상호작용과 영향의 구성체이며 양소문화는 결코 서방에서 직접 기원하지 않았다고 단언하였다. 중국의 학자들도 좌시하지 않았다. 郭斌佳는 서구 학자들의 서방 기원설에 대해 일일이 비판한 후 중국신화, 전설상의 문명신들을 중국 문명 창조의 상징으로 간주하여 중국문명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중국의 고고 발굴이 내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속속 여러 지역에서 고대 문명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자생설은 통설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사회주의 중국에서 한때 외래설은 중국문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不敬視 되었으며 고대문명에 대한 논의는 목시적으로 자생설을 전제하고 모든 외래설의 가능성을 차단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정도였다. 이러한 강력한 자생설의 분위기는 최근 嚴文明, 邵望平, 張光直 등 굴지의 고고학자들이 함께 펴낸 중국문명 기원 관련 저작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음의 언명이 그것이다.

중국문명은 土生土長의 독립적인 原生文明이다. ..... 만일 세계의 사회과학자들이 그들의 이론이 중국사의 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극히 풍부한 사료를 지닌 중국사의 사회과학에 대한 공헌의 잠재력은 값을 매기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21세기의 사회과학은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다.<sup>6)</sup>

앞서의 광말약의 비분강개한 토로는 한 세기가 채 못 되어 이처럼 자부심과 확신에 찬 언명으로 바뀌었다.

6) 徐萃芳, 嚴文明, 張光直 等, 《中國文明的形成》(北京: 新世界出版社, 2004), p.345.

## 1. 單元論

단원론의 역사는 유구하다. 중원이 중국문명의 중심이자 유일한 기원이라는 말인데 알고 보면 이러한 취지는 중원의 漢族과 주변의 이민족을 峻別하는 華夷論 곧 中華主義와 상관되고 다시 중화주의의 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최소한 유교가 국교로 정립되는 漢代, 여기서 더 소급한다면 華夏系 종족이 중국을 지배하게 된 周代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화주의의 지역적 기반이 중원, 사상적 기반이 유교, 종족적 기반이 한족이라고 인정할 때 중화주의는 분명 중심주의이며 단원론적 문명사관과 상관될 것이다. 이러한 문명사관은 중국인에게 내면화되어 있었고 근대 이후 고고 발굴 성과를 이론화하는 데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후대의 고고 발굴이 전통적인 중화주의의 타당성을 입증시켜 주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니 양자는 상호인증 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근대 초기 서방 기원설이 중국문명의 정체성을 위협했을 때 이것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전통적으로 중국인의 자부심을 표명해온 중화주의적 문명사관이었다. 이 관념은 비록 서세동점의 대세와 근대화의 열망에 의해 타격을 입긴 했지만 양소문화, 용산문화, 殷 문명 등 황하 유역에서 화려한 선사, 고대 문명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자생설의 대두와 함께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 즉 고고 발굴의 성과인 이른바 황하문명 중심론과 전통적인 중화주의의 결합은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安志敏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夏, 商, 周는 일찍이 이 지역[중원]에서 계급국가를 건립하여 장기간의 통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고고 발견으로 상, 주 시대의 유적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특히 상 문명이 史前 문화의 맥락을 계승했다는 사실은 거울같이 명백하다. 따라서 황하 유역의 중원 지역은 의심할 나위 없이 중국문명의 발상지이며 (이 문

명은) 장강 하류 및 더 광활한 지대로 신속하게 확대되었다. 다만 주변의 어떤 지역들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이르러서야 씨족제도를 종결하였는데 이러한 발전상의 불평형은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었다. 우리는 상 문명의 출현이 초기 국가의 탄생을 시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역과 영향이 계속 확대되어 통일의 작용을 일으켜서 후일의 역대 왕조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사전통을 계승한 것임을 알 수 있다.<sup>7)</sup>

안지민의 이러한 언급은 고고 발굴의 성과가 전통적인 중화주의의 입장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상응함을 말해주고 있다. 일찍이 경학, 제자학 등 古學 제 분야를 중화주의가 지배했던 것처럼 단원론은 고고학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사학, 철학 등 근대 인문학 제 분야에서도 통설로 군림하였다. 신화학자 印順法師의 언명을 들어보자.

황하 유역은 중화민족의 문화가 성장한 온상이다. 중화민족은 여기에서 우수한 문화를 창조하여 주변의 민족들을 월등히 뛰어넘어 문화의 중심을 형성하였는데, 그것을 화 혹은 화하라고 부른다. 화하문화의 구역은 곧 황하의 중, 하류 지역이다.<sup>8)</sup>

핀란드 학파에 속하는 설화학자 丁乃通도 중국설화의 전파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설화는 일반적으로 높은 문화수준을 지닌 사람으로부터 낮은 문화수준을 지닌 사람들에게로 확산된다. .... 허다한 설화 유형은 분명히 한쪽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다만 설화의 전달자일 뿐이다.<sup>9)</sup>

단원론이 이처럼 통설이 된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 이유가 있었

7) 安志敏, <試論文明的起源>《考古》(1987), 5, 455-456쪽.

8) 印順法師, 《中國古代民族神話與文化之研究》(臺北: 華岡出版公司, 1975), 10쪽.

9) Ding Nai-Tong, *A Type Index of Chinese Folktales* (Helsinki: Folklore Fellows Communications, No. 223, 1978), 8쪽.



다. 그것은 1970년대 이전 서방 기원설의 비판, 극복에 열중했던 시기의 고고 발굴이 황하 유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황하 유역의 발굴 성과만으로 중국 고대 문명의 전모를 평가하다 보니 자생설이 곧 중원 기원설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서 전통적인 중화주의가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중원보다 선진적인 주변 문명이 발굴될 가능성조차 배제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슐라르나 하이젠베르크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는, 객관적인 학문세계에서도 존재하는 이른바 ‘본체인지 조작’의 혐의를 발견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중국 각지의 변경 지대에서 중원 지역보다 앞서고 발달한 문명의 존재가 발굴로 인해 속속 알려지면서 황하문명 중심의 단원론 곧 중원 기원설은 폐기될 운명에 처해진다. 그러나 다원론이 일반화된 이 즈음에도 여전히 중원 기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李紹連은 이렇게 강변한다.

역사전설, 문헌과 고고 자료에 근거해보면 황하 중, 하류에 처한 중원 지역 즉 河南과 陝, 晋, 冀, 魯 등의 지역, 멀리는 甘, 青과 陝 인근의 지역은 전설적인 炎帝와 黃帝 두 씨족부락이 핵심이 되어 구성된 華夏族의 주요 활동 지역으로 중국 최초의 국가를 화하족이 이 지역에 건립했던 것이다. 따라서 고대 중국을 화하라고 불렀다. ....우리들이 지금 중국문명의 기원을 탐구하는 일은 실상 화하문명의 기원을 탐구하는 일이다. 중국 경내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명 발상지가 중원이라면 중국 경내의 기타 지역 예컨대 長江 유역, 珠江 유역과 북방(동북과 내몽고를 포괄한) 및 기타 지역 또한 문명 발상지 중의 하나이지만 시기가 좀 늦으며 많던 적던 중원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들은 중원 화하문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일이 전체 중국문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관건임을 알 수 있다.<sup>10)</sup>

중원 기원설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은 이러한 언급은 중화주의가 얼

10) 李紹連, 《華夏文明之源》(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92), 4쪽.

마나 뿌리 깊게 중국인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이 여전히 학술 전반에 대해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웅변한다.

## 2. 多元論

근대 이후 외래설 즉 서방 기원설과 이에 대항한 자생설 즉 중원 기원설이 각축을 벌이고 있을 즈음 에버하르트는 양자를 모두 배격하면서 다원론을 주장하여 異彩를 발하였다. 그는 양소문화는 다양한 문화 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서방적 요소는 그중의 일부일 뿐이라고 서방 기원설을 대체로 부정하는 한편 중국인의 전통적인 중화주의적 문명사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모든 시대의 중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중국문화와 사회의 단일성을 주장해왔고 외국의 학자들도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중국을 4천여 년에 걸쳐 동일성을 유지해온 세계의 유일한 문명으로 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중국사회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낡은 이론이다. “황하 유역 어딘가에 중국이라고 불리는 발달된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는 중국인이라고 불리는 어느 민족에 의해 발달되었고 중국적이라는 사회와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 안에서 전통적인 나라들과 좀 근대화된 나라들에서조차 전형적인 국수주의의 강한 요소와 어떤 경우 인종차별주의의 요소까지 인식할 수 있다.<sup>11)</sup>

에버하르트는 이러한 비판의 토대 위에서 중국 상고문명의 자기동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중국의 ‘지역 문화[Local Culture]’ 간 상호작용이라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로 인식하였는데 변경 지역에 대한 고고 발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신화, 민속자료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그

11) Wolfram Eberhard, *The Local Cultures of South and East China*, trans. by Alide Eberhard(Leiden: E. J. Brill 1968), 9-10쪽.

의 다원적 중국문명론은 가히 선각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중국 내부에서도 기존의 화하계 종족 중심의 단원론적 문명사관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王國維는 이미 <殷周制度論>에서 殷과 周의 문화적 기원과 성격이 상이함을 설명함으로써 중국문명이 통일적이지 않음을 시사했으며 傅斯年은 <夷夏東西說>에서 중국의 상고사가 서방의 夏族과 동방의 夷族과의 대등한 투쟁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고 논증하고 주대 이후 司馬遷에 이르기 까지 夷族을 배제하고 夏族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하여왔다고 비판함으로써<sup>12)</sup> 보다 철저히 단원론에 반대하였다. 이들의 뒤를 이어 徐炳昶[旭生]은 <中國古史的傳說時代>에서 중국 상고시대에 활동했던 민족을 華夏集團, 東夷集團, 苗蠻集團의 3大集團으로 분류함으로써 다원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다원론을 향한 이러한 가설들과 아울러 점차 고고 발굴이 앙소, 용산, 殷墟 등 황하 유역의 중원 지역은 물론 이를 훨씬 벗어난 장강, 遼寧, 四川 등 남방, 북방, 서방의 변경 지역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중원보다 시기적으로 이르거나 발전된 단계의 신석기 혹은 청동기 문명의 존재가 속속 밝혀지게 된다. 예컨대 정교한 玉器와 神殿이 발굴된 장강 유역의 良渚 문화, 積石塚과 女神廟가 발굴된 遼河 유역의 紅山 문화, 青銅人面像과 祭器가 발굴된 사천 지역의 三星堆 문화 등은 모두 중국 史前史 및 上古史를 다시 쓰게 한 20세기 후반의 고고학적 성과들이었다.

변경 지역의 새로운 발굴에 힘입어 마침내 고고학자들은 단원론을 폐기하고 다원론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 방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蘇秉琦, 殷璋璋 등의 발언을 들어보자.

과거에 한 가지 견해가 있었다. 황하 유역이 중화민족의 요람이며 우리나라의 민족문화는 먼저 이곳에서 발전한 후 사방으로 확대되었다는. 그리고 기타 지역의 문화는 낙후되어 황하 유역 문화의 영향 하에서만 발전할

12) 傅斯年, <夷夏東西說>(서울: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 정재서 역, 155-156, 182쪽.

수 있었다는. 이러한 견해는 온전히 옳은 것이 아니다. 역사상 황하 유역은 확실히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다. 특히 문명 시기에 그것은 항상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시기에 기타 지역의 고대문화 또한 각자의 특징과 방식이 발전하고 있었다. 각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 자료는 갈수록 많아져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아울러 영향은 언제나 상호적이어서 중원이 각 지역에 영향을 주었고 각 지역 또한 중원에 영향을 주었다.<sup>13)</sup>

소병기, 은위장 등의 발언은 그보다 수십 년 전에 제기되었던 에버하르트 의 이른바 ‘지역문화[Local Culture]’의 개념을 상기시킨다. 에버하르트는 중원 문화 중심을 부인하고 중국문명을 다양한 지역문화의 상호구성체로 파악한 바 있었다. 소병기 역시 이른바 ‘區系類型論’을 제창하고 중국의 고고 문명을 6대 區系로 분류한다. 그것은 아래와 같다.<sup>14)</sup>

1. 燕山 남북, 長城 지대를 중심으로 한 북방
2. 山東을 중심으로 한 동방
3. 關中(陝西), 晉南, 豫西를 중심으로 한 중원
4. 太湖 주위를 중심으로 한 동남부
5. 洞庭湖 주위와 四川 분지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
6. 鄱陽湖-珠江 삼각주 라인을 중축으로 한 남방

소병기의 이러한 분류는 修柱臣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 의해서도 지지될 것이다.

중국의 신석기 시대 단계의 경우 어느 한 지점에서 기원했느냐의 문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구석기 시대 만기로부터 중석기 시대를 거쳐 신석기 시대를 향하여 계속 발전했던 것인데 계속 발전해나간 신석기 시대 문화는 또 여러 개의 중심을 형성했고 그리하여 多中心을 이루어 발전했다.<sup>15)</sup>

13) 蘇秉琦, 殷璋璋,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文物》(1981), 5, 11쪽.

14) 蘇秉琦, 《中國文明起源新探》(香港: 商務印書館, 1997), 29-30쪽.

소병기, 동주신 이외에도 凌純聲, 邵望平, 張光直, 李學勤, 蕭兵, 葉舒憲 등 대다수 학자들이 다원론을 지지함으로써 전통적인 중화주의와 표리를 이루었던 단원론은 사실상 폐기되고 이제 다원론이 중국문명 기원론의 정론이 되었다.

#### IV. 中國文明 起源論에 대한 批判的 檢討

계몽주의 시대 이후 근대에 이르기 까지 서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외래설 즉 서방 기원설은 실제 학문적인 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이 입증된 것도 없지 않으나 이들 주장의 이면에는 당시 서구 학풍의 입김이 거세게 작용하였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서구의 동양에 대한 명백한 편견, 이른바 오리엔탈리즘이 존재하였다.

중국의 학자들은 이에 대응하여 서구의 중심주의를 반대하고 자생설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초기에 주로 단원론으로 나타났고 단원론의 이면에는 주변문화에 대한 편견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중화주의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의 학자들이 외래설 곧 서방 기원설에 대응할 때에는 세계 문명의 다원 발생론을 지지하면서도 정작 중국 대륙 혹은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을 논할 때에는 단원론 즉 중원 기원설을 고수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원론 자체가 숨藏하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看取할 수 있고 이러한 동기가 이후에도 쟁론의 행로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문명 기원 논의가 에버하르트 등 일부 선각적인 학자들의 문제 제기 이후 지역적으로 다양한 고고 발굴 성과에 힘입어 단원론을 극복하고 다원론으로 향해 나아간 것은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15) 修柱臣, <中國新石器時代文化的多中心發展論和發展不平衡論>《文物》(1986), 2, 16쪽.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변경의 여러 지역 중 특별히 遼河 일대에 주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중국 대륙에서 기원이 가장 오래된 신석기 문명으로 편년되는 小河西 문화가 발견되고 紅山 문화 등에서 女神像, 女神廟, 玉龍 등 다양하고 의미 깊은 발굴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국은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2003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中國古代文明探原工程’의 일환으로 ‘遼河文明論’을 구성하고 있는데 요하문명론을 통하여 1) 요하 일대를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서는 새로운 문명권으로 부각시키고 2) 중국 문명의 기원을 기존의 황하 유역이나 장강 유역이 아니라 바로 요하 유역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3) 중국 문명의 기원지인 요하 일대에서 기원한 고대 민족은 黃帝의 후예라는 논리를 고안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기획은 근대의 疑古史學을 비판하는 李學勤, 郭大順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신화, 전설과 고고학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는 유흐메리즘(Euhemerism)과 역사환원주의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의해야 할 것은 요하문명론 구성이라는 이 시도가 기존의 중화주의-중원 기원설의 거점인 황하를 요하로 바꾼 것에 불과한 신판 단원론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 중화주의-중원 기원설-신판 단원론의 일관된 논리체계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가 黃帝이다. 황제는 중국민족의 시조로 추앙되는 인물로 동방 東夷系 혹은 남방 苗蠻系 종족의 대신인 炎帝, 蚩尤 등과 대립적인 견지에서 서방 華夏系 종족을 대표하는 신화적 존재였다. 이에 따라 그의 근거지도 섬서, 하남 등 과거의 중원인 황하 유역으로 상정되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요하문명론이 제기되기 전 이학근의 논증에서도 황제의 근거지는 河南省의 新鄭으로 比定되고 있었다.<sup>17)</sup> 그런데 요하 유역에서 황하 유역보다도 오랜 문명의 유적이 발견되면서 황제의 근거지는 돌연 황하 유역에서 요하 유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황제는 원래 人面龍

16) 우실하, 《동북공정너머 요하문명론》(서울: 소나무, 2007), 41-42쪽.

17) 李學勤, 《走出疑古時代》(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7), 42-43쪽.

身の 신으로 용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중국인은 스스로를 ‘용의 자손(龍的傳人)’이라 할 정도로 황제를 용과 동일시 해왔다. 그런데 요하 유역에서 발굴된 옥룡 등의 실체가 熊龍 곧 곰으로 추정되면서 황제는 갑자기 용에서 곰의 화신으로 변모하였다. 황제의 실제 근거지가 요하 유역이냐 아니냐, 그의 神體가 정말로 곰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중국 학계의 이와 같은 신화, 전설과 고고학의 결합 시도는 신판 단원론을 위한 정치성을 띤 작업이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결국 중국문명 기원론의 이면에는 외래설-서방 기원설이든 자생설-중원 기원설이든 오리엔탈리즘 혹은 시노센트리즘(Sinocentrism)이라는 종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욕망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학근, 곽대순 등의 상술한 내향적, 구심적 문명사관과는 다른 차원에서 장광직은 중국문명의 고유한 발생과 발전의 논리를 서구문명 및 여타 문명과의 비교 하에 얻은 결론으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외향적, 원심적 문명사관을 취하고 있어 신판 단원론과는 궤도를 달리 한다. 그는 우선 중국문명과 서구문명의 발전과정상의 차이성에 주목한다.

중국역사의 초기에 원시사회에서 문명사회로의 발전과정에는 자신만의 특성들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과 근동 및 유럽 등 서방문명의 이 단계에서의 사회발전상 특성들과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중국역사 연구의 사회과학 일반법칙에 대한 공헌은 우리들의 적극적인 연구를 기다리는 과제이다.<sup>18)</sup>

장광직은 중국문명이 천인합일의 우주관을 바탕으로 도시, 종교제도, 문자 등에 있어서 연속성을 지녀왔으며 이것은 신과 인간의 단절에서 비롯한 돌파성을 특성으로 하는 서구문명의 발달 과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중국문명은 서방문명을 제외한 마야문명 등 비서방 지역의 문명들과 이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서구 사회과학의

18) 張光直, 《中國青銅時代(2)》(香港: 三聯書店, 1990), 14쪽.

문명 기원 및 발전 模式을 중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여기에서 나아가 그는 중국문명의 기원과 발전 모식이 그동안 통용되어온 서구 사회과학 일반법칙의 편파성을 극복,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up>19)</sup> 장광직의 견해는 종래 표준으로 군림해온 서방 문명 중심의 기원 및 발전 이론에 대해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시정을 촉구하고 중국 및 비서방 문명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학문상의 이러한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correctness)’의 심문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다만 우리는 대 서방 문명 관계가 아닌 중국 혹은 동아시아 문명을 다루는 내부 논의에서도 중국과 주변 민족, 문명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광직의 다원주의적, 개방적 입장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변 민족과 그들의 문명을 중원으로, 또는 새로이 설정된 중원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장광직을 위시한 중국의 대부분 학자들이 그토록 비판한 서방 문명 중심론 혹은 오리엔탈리즘의, 무대를 달리 한 재연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V. 中國文明의 起源과 古代 韓國

중국문명의 기원 문제는 단순히 중국 자체의 학술적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중국 민족과 문명의 기원을 다원주의적, 개방적으로 생각할 때 특히 변경 지역의 문명은 근대 이후의 배타적 국민국가 개념 특히 속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논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변경 지역은 과거에 여러 민족과 문명이 각축을 했던 경합적인 지역이고 더구나 史前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의 국경으로 당시의 문명을 구획하기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문명의 기원 문제는 장구한 시간 국경을 접하며 종족적, 문화적 교류를 지속해온 한국문명의 기원 문

19) 徐萃芳, 嚴文明, 張光直 等, 앞의 책, 345쪽.



제와도 불가분의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아닌 게 아니라 韓中 양국 고대 문명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중 잘 알려진 것으로는 東夷 문명, 商 문명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것들이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어온 동이 문명이 포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한 가지는 중국의 산둥, 요녕, 동부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동이계 종족들이 건설한 문명으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를 산둥 지역에만 국한시키는 견해이다. 부사년은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sup>20)</sup> 역사, 고고학적으로는 산둥과 요녕이 墓制, 靑銅劍 등에 있어서 동일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요녕은 동이 지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sup>21)</sup> 그러나 동이 문명의 중요한 표지인 조류 승배 모티프가 홍산문화로부터 장강 유역의 河姆渡문화에 이르기 까지 玉器 자료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산둥과 요녕 등을 동일한 동이 문명권으로 보기도 한다.<sup>22)</sup>

동이 문명 다음으로 한국 고대 문명과의 관련성이 많이 거론되는 것으로는 상 문명이 있다. 부사년은 상 문명의 고향이 요녕임을 분명히 하고 심지어 箕子의 고조선으로의 망명을 “선왕이 살던 곳을 좇은 것(從先王居)”이라고 까지 표현하였다.<sup>23)</sup> 그의 제자 장광직 역시 상과 고대 한국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긍정하였다. 그렇다면 상과 동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도 역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상을 동이와 같은 계통의 종족으로 보지만 부사년 등 일부 학자들은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사 상과 동이가 상이한 종족이고 산둥과 요녕이 문화적으로 별개의 지역이라고 간주한다 할지라도 동이와 고대 한국과의 문화적 상관성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지질학적으로 間氷期 이전 발해만 및 황해의

20) 傅斯年, 앞의 책, 정재서 역, 43쪽.

21) 李成珪, <先秦文獻에 보이는 ‘東夷’의 성격> <한국고대사논총>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1), 제1집 및 奇修延, <東夷의 개념과 실체의 변천에 관한 연구> <白山學報> (1993), 42, 참조.

22) Wu Hung, “Bird Motifs in Eastern Yi Art” *Oriental Art* (1985), 16:10 참조.

23) 傅斯年, 앞의 책, 정재서 역, 89쪽.



[女神廟. 牛河梁 유적]



[女神頭像. 牛河梁 유적]



[玉.熊龍, 牛河梁 유적]

상태는 바다가 아닌 평원지대로 산둥과 요녕, 한반도 등지의 교류는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둥이와 상 종족 그리고 그들의 무대인 요녕, 산둥, 하남, 동부 해안 등지와 관련된 고고 발굴 성과로는 용산문화, 은허 지역의 문화와 산둥의 大汶口문화를 비롯 남쪽으로는 양저문화, 하모도문화 등이 있고 동북쪽으로는 요하 유역의 홍산문화 등이 있다. 우리는 일단 이들 문화와 고대 한국문명과의 기원적 상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부사년, 장광직 등이 고대 한국문명 특히 고조선과 관련하여 거론한 상 문명의 발상지를 요녕 지역으로 추정할 때 현재까지 중국 대륙에서 발굴된 성과로서 編年이 가장 오래 된 요하 유역의 신석기, 청동기문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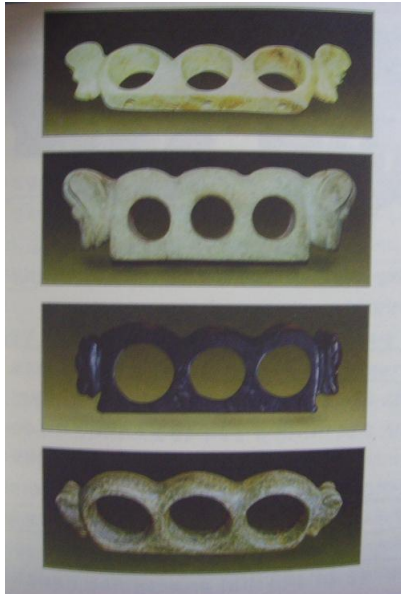
이 지역의 문화로는 신석기 시대로서 小河西 문화(기원전 7000년~기원전 6500년)-興隆洼 문화(기원전 6200년~기원전 5200년)-查海 문화(기원전 5600년경)-富河 문화(기원전 5200년~기원전 5000년)-

趙寶溝 문화(기원전 5000년~기원전 4400년) 등이 있고 銅石併用 시대로서 紅山 문화(기원전 4500년~기원전 3000년)- 小河沿 문화 (기원전 3000년~기원전 2000년), 초기 청동기 시대로



[圓形 積石塚. 牛河梁 유적]

서 夏家店 하층 문화(기원전 2000년~기원전 1500년) 등이 있는데<sup>24)</sup> 이들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집단 주거지, 옥귀걸이, 石小龍, 빗살무늬 토기, 卜骨 등이 발굴되었다. 특히 홍산 문화의 牛河梁 유적지에서는 1986년에 대형 제단, 여신묘, 여신상, 玉猪龍(玉熊龍), 積石塚群 등이 발견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었다.



[雙獸首三孔器. 牛河梁 유적]

이형구, 우실하 등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적석총, 石棺墓, 빗살무늬 토기, 복골, 옥제품 등 이 지역 특유의 발굴물들이 과거의 고구려, 부여 지역 및 한반도에서 공유되는 것으로

미루어 요하 유역 문명이 고대 한국문명의 기원과 깊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24) 우실하, 앞의 책, 103쪽에서의 정리를 따른다.

로 논정하고 있다.<sup>25)</sup> 한영우는 이 지역에서 출토된 곰 조각품 및 여신상을 근거로 단군신화와 관련된성을 제기하고 고조선의 첫 도읍지 평양이 홍산문화의 근거지인 적봉 일대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sup>26)</sup>

물질문명 자료와 더불어 양자의 동질성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종교, 신앙 자료가 될 것이다. 고대 한국-상-요하 유역 문명의 바탕을 일관하는 중요한 원시종교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도 한국문화의 근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무속 곧 샤머니즘이라 할 것이다. 상이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성립된 신정국가임은 진몽가, 장광직 등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 요하 유역에서 발굴된 여신상을 여무, 동경을 무구, 복골을 점복 행위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샤머니즘의 농후한 요소를 감지할 수 있다. 아울러 우실하는 샤머니즘의 세계관을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3수 분화’의 도식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도식이 홍산문화 지역에서 발굴된 陶塑三人像, 三孔器, 3층 계단식 적석총 등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이렇게 다각도의 측면에서 고찰해 본 결과 요하 유역 문명은 고대 한국문명과 깊은 기원적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요하 유역 문명의 성립 주체나 타 문명과의 상관성 등이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대 한국 문명과 요하 유역 문명의 기원을 동일시하는 것은 성급한 논단일 것이다. 그러나 양 문명 사이의 친연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 지역의 문명 또한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만은 아니고 타 문명과의 교류가 있었음이 추정되며 주민은 人面像 등으로 미루어 몽골 인종 계통으로만 밝혀졌을 뿐 史前 시대의 종족적 상황을 확정짓기란 지난한 일이다. 따라서 이 지역 문명의 형성, 성립주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중국은 물론 인접한 한국, 몽골 등 주변의 여러 민족 및 고대 문명과의 상관성에 대해 가능성을

25) 이형구, 《발해 연안에서 찾은 한국 고대문화의 비밀》(서울: 김영사, 2004).  
우실하, 앞의 책, 294-334쪽.

26)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서울: 경세원, 2012), 77쪽.

27) 우실하, 《3수 분화의 세계관》(서울: 소나무, 2012), 201-241쪽.

열어두고 탐구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요하 유역 문명을 오로지 중국문명 기원의 입장에서 신판 단원론적, 중원 중심으로 수식하려는 시도는 역시 무모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始原으로서 요하 유역 문명이라는 이 열려진 가능성을 바탕으로 신화, 도교 등 동아시아 상상력의 발생과 변천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VI. 結 語

본고에서는 중국문명 기원론을 크게 외래설과 자생설로 나누고 다시 자생설을 단원론과 다원론으로 나누어 논의한 다음 전체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함과 아울러 고대 한국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附論하였다. 논의의 결과 외래설 곧 서방 기원설은 오리엔탈리즘의 혐의가 농후하며 자생설의 단원론은 시노센트리즘 곧 중화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감지되었다. 단원론은 이후 고고 발굴의 확대와 자기 반성적 학풍에 의해 다원론으로 대체되었다.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중국문명 기원론은 외래설에서 자생설로, 다시 자생설 내부에서는 단원론에서 다원론으로 나아가는 경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근래 홍산문화의 발견을 계기로 신판 단원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고학의 이면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신화학의 존재이다. 신화학은 고고학의 영향으로 방증을 얻기도 하지만 도리어 고고학의 결과를 귀납할 때 선입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 중국문명 기원론에서는 후자의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경향을 불식하고 보다 객관적인 문명론의 단계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중국문명 기원론에서 향후 어떠한 태도가 요청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1) 중국신화학 자체가 內藏하고 있는 중원 중심주의를 해체하여 다원주

의적 전망에 입각한 신화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상호텍스트적 신화체계야말로 고고학상의 다원주의와 표리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2) 외래설 곧 서방 기원설을 오리엔탈리즘으로만 일축하는 것은 근대 이래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證左로 볼 수 있다. 외래설 중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는 적극 검토하여 중국문명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서구에 대해서는 다원론, 동아시아 내부에서는 단원론을 주장하던 모순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 주변 문명의 존재를 종래의 근원주의적, 중심적 태도를 止揚한 대위법적인 차원<sup>28)</sup>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홍산문화에 대한 신판 단원론은 이러한 견지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郭沫若, 《中國古代社會》, 三聯書店, 1978.  
 徐萃芳, 嚴文明, 張光直 等, 《中國文明的形成》, 新世界出版社, 2004.  
 印順法師, 《中國古代民族神話與文化之研究》, 華岡出版公司, 1975.  
 蘇秉琦, 《中國文明起源新探》, 商務印書館, 1997.  
 李學勤, 《走出疑古時代》, 遼寧大學出版社, 1997.  
 李紹連, 《華夏文明之源》, 河南人民出版社, 1992.  
 張光直, 《中國青銅時代(2)》, 三聯書店, 1990.  
 列·謝·瓦西里耶夫, 《中國文明的起源問題》, 文物出版社, 1989.  
 傅斯年 著, 정재서 역, 《夷夏東西說》, 우리역사연구재단, 2011.  
 佟柱臣, <中國新石器時代文化的多中心發展論和發展不平衡論>《文物》 2, 1986.

28)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93), 52쪽.

- 蘇秉琦, 殷璋璋,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文物》 5, 1981.
- 安志敏, <試論文明的起源>《考古》 5, 1987.
- 한영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 경세원, 2012.
- 이형구, 《발해 연안에서 찾은 한국 고대문화의 비밀》, 김영사, 2004.
- 우실하, 《3수 문화의 세계관》, 소나무, 2012.
- 우실하, 《동북공정너머 요하문명론》, 소나무, 2007.
- 李成珪, <先秦文獻에 보이는 ‘東夷’의 성격>《한국고대사논총》 1, 한국고  
대사회연구소, 1991.
- 奇修延, <東夷의 개념과 실체의 변천에 관한 연구>《白山學報》 42, 1993.
-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Alfred A. Knopf Inc., 1993.
- Wolfram Eberhard, *The Local Cultures of South and East China*, trans.  
by Alide Eberhard, E. J. Brill, 1968.
- Ding Nai-Tong, *A Type Index of Chinese Folktales*, Folklore Fellows  
Communications, No. 223, 1978.
- Karl Jettmar, “The 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 Soviet View” *The  
Origins of Chinese Civiliza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Edited  
by David N. Keightley, 1983.
- Victor H. Mair, “The Narrative Revolution in Chinese Literature:  
Ontological Presuppositions” *Chinese Literature*, 1983, Vol.5,  
No.1-2.
- Victor H. Mair, <Southern Bottle-Gourd(hu-lu 葫蘆) Myths in China  
and Their Appropriation by Taoism>《中國神話與傳說學術研討會  
論文集(上)》, 漢學研究中心, 1996.
- Wu Hung, “Bird Motifs in Eastern Yi Art” *Oriental Art* 16:10, 1985.

## &lt;中文提要&gt;

本文先把中国文明起源论分为外来说和自生说，再把自生说分为单元論和多元論而讨论后，对整个论旨进行有批判性的考察，同时对与古代韩国文化的关联性加些附论了。其结果：外来说，即西方起源说带有浓厚的东方主义(Orientalism)；自生说的单元论受到了中华主义(Sinocentrism)的影响。以后多元论因考古发掘的扩大与自省的学风逐渐代替了单元论。从整体构建来看，中国文明起源论有着从外来说到自生说、在自生说里面从单元论到多元论的走进倾向。但是由于红山文化的发现，近来渐露新版单元论的征兆。

在这种变迁过程当中，该注目的是在考古学内面上不断运转的神话学的存在。神话学依靠考古学得到旁证，但归纳考古学的结果时神话学反而作为先入之见起作用。如上文所述，中国文明起源论带有明显的后者的倾向。那么，要打消这种倾向、达到更加客观的文明论的阶段，往后，中国文明起源论需要什么样的态度？本文以对其提示几个观点代替结论。

- 1) 中国神话学要解构自己内藏的中原中心主义，而构筑基于多元主义的展望的神话体系。互文性的(intertextual)神话体系将与考古学上的多元主义构成表里关系。
- 2) 把外来说，即西方起源说只看成东方主义，是个未摆脱现代以来的被害意识的佐证。外来说当中肯定的部分需要积极的检讨，所以我们说明中国文明的形成时，积极地采取开放的态度。
- 3) 对西方主张多元论、在东亚内部主张单元论，我们脱离这种矛盾的观点，扬弃从来的根源主义的态度而在对位法的层面上把握中国周围文明的存在。从这种观点来看，对红山文化的新版单元论内含着相当的问题。

주제어 : 外来说, 自生说, 单元论, 多元论, 东方主义, 中华主义, 红山文化